

보건·복지 ISSUE & FOCUS

Korea Institute for Health
and Social Affairs

ISSN 2092-7117
제 217호 (2013-47) 발행일 : 2013. 11. 29

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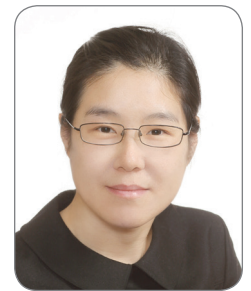
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태 변화*

금연할 의사가 있는 평균 담배가격은 약 9,000원대로 추정되었으며,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연의사 담배가격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

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욱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연 실천율을 기대할 수 있음

금연치료제에 대한 비용분담에 대해 국가에서 약 70%를, 본인이 30%정도 부담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음

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금연치료에 지원하면 저소득층의 금연 실천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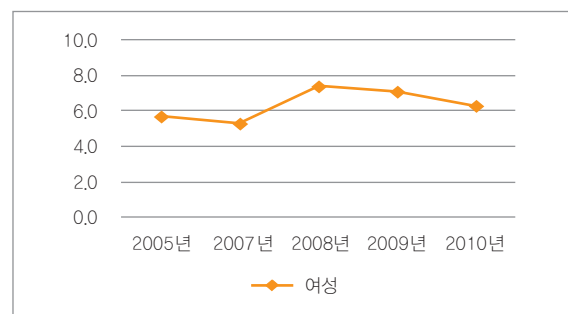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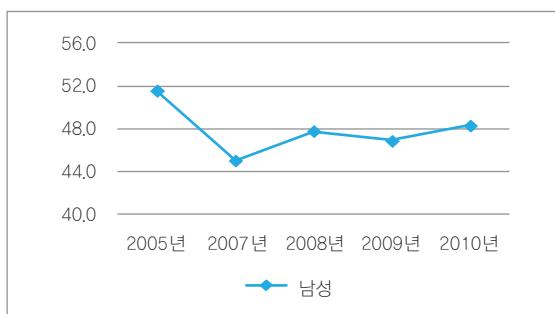
고숙자
생활습관병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1. 흡연을 및 담배가격 현황

■ 우리나라 성인의 연도별 흡연율 추이

○ 200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에 흡연율 감소를 보이다가, 최근에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

[그림 1] 연도별 흡연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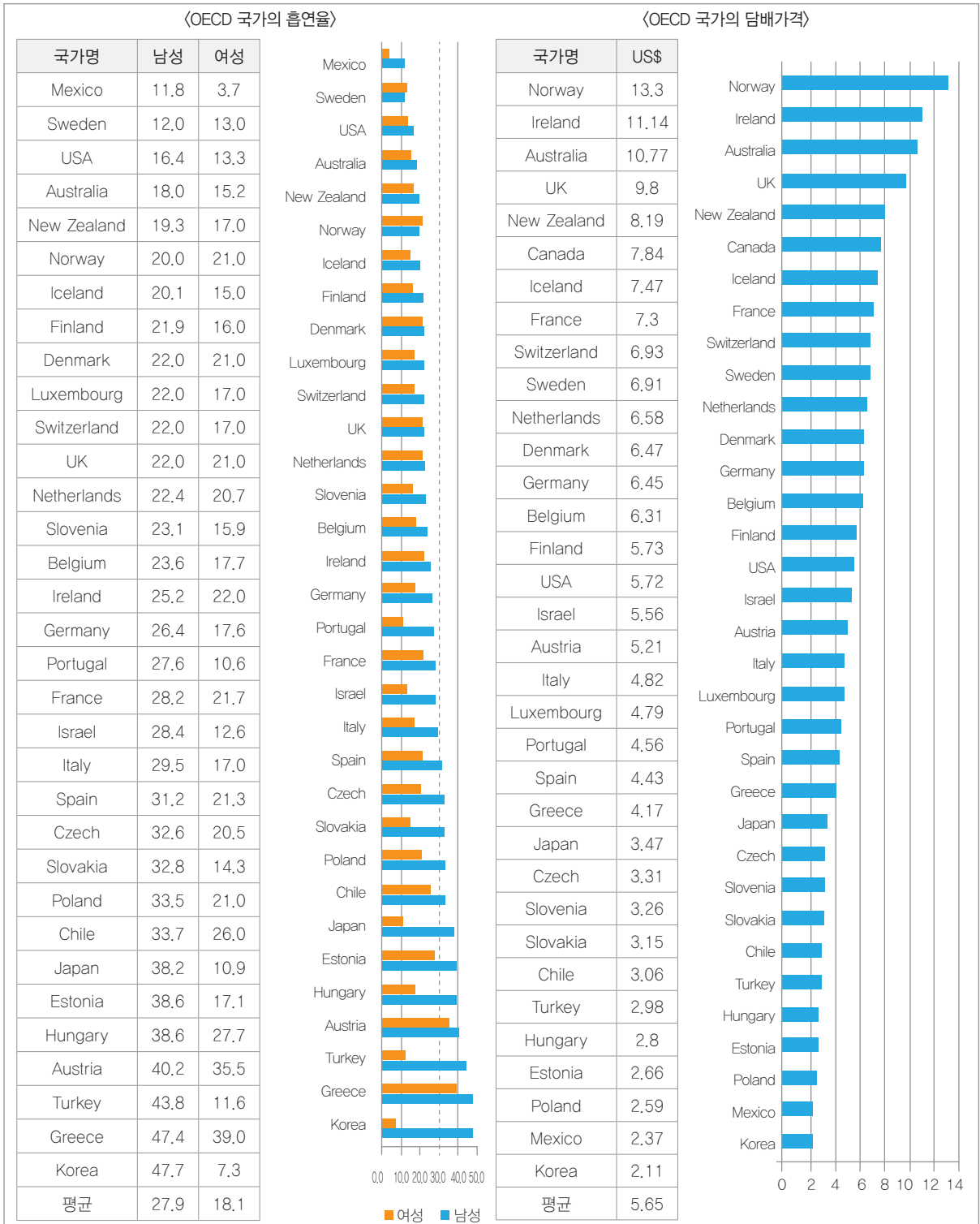
* 본 고는 '고숙자 외(2013),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, 한국보건사회연구원'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.

■ OECD 국가와의 흡연율 및 담배가격 비교

○ OECD 국가의 남성 흡연율을 보면, OECD국(평균 27.9%)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남성 흡연율(47.7%)을 보이고 있음

○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국가(평균 5.65달러) 중에 담배가격이 2.11달러로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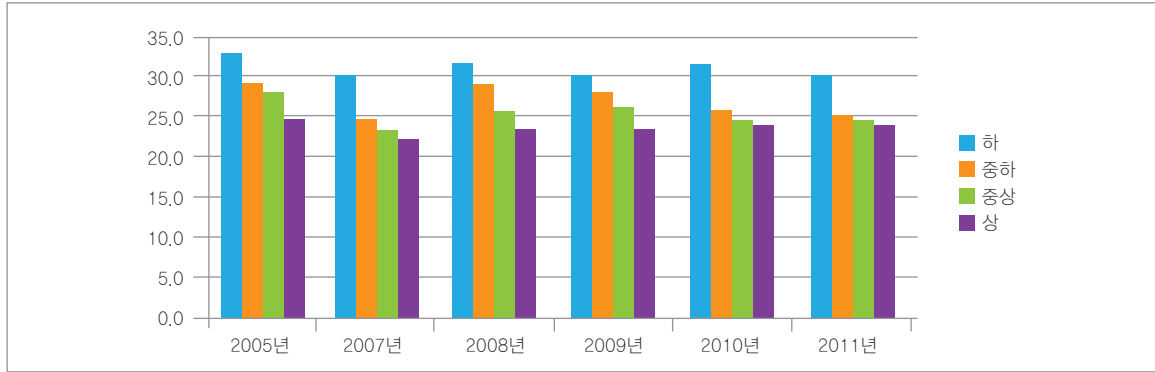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OECD 국가의 흡연율 및 담배가격 비교



■ 소득수준별 흡연율 추이

○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

[그림 3] 소득수준별 흡연율 추이



2. 금연의향 및 금연시도

■ 흡연자의 인식 및 가격에 따른 행태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12일 ~ 4월 22일까지 전화설문조사를 수행

■ 연령별 흡연량

○ 19세 이상 흡연자 중 매일 흡연자는 95.6%에 하루 평균 16.8개피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, 가끔 흡연자는 4.4%로 하루 평균 5.1개피, 월평균 13.7일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음

■ (담배 중독성) 매일 흡연자의 경우 19세에서 59세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강도가 점차 높아져, 점차 담배 중독성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음

○ 19~29세 사이에서의 매일흡연자의 비중이 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며, 가끔 흡연자의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결과가 이러한 추론을 지지

<표 1> 연령별 흡연량

	매일 흡연자		가끔 흡연자		
	비중(%)	일평균 (개피)	비중(%)	월평균 (일수)	일평균 (개피)
19~29세	89.2	14.0	10.8	14.8	6.4
30~39세	97.0	15.9	3.0	11.5	4.3
40~49세	97.2	17.8	2.8	11.0	5.0
50~59세	96.1	19.8	4.0	15.0	5.2
60세 이상	95.8	15.7	4.2	14.6	4.0
계	95.6	16.8	4.4	13.7	5.1

■ 소득수준별 · 연령별 금연의향

- 현 흡연자의 51.4%가 1년 이내 금연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
 -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
 - 연령대별로 보면, 50~59세가 가장 높은 60.5% 수치를 보임
 - 50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금연의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

■ 소득수준별 · 연령별 금연시도

-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금연시도 횟수가 다른 소득수준계층에 비해 적었음

■ 금연의향과 금연시도의 연계

- 금연시도 횟수와 같이 고려하면 금연의향이 실제로 행동(실천)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낮은 것으로 추론됨
- 금연의향이 실천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과 전략마련이 필요

〈표 2〉 금연시도 및 금연의향

소득수준별	금연시도 (평균 횟수)	금연의향 (전체 중 %)	연령별	금연시도 (평균 횟수)	금연의향 (전체 중 %)
1분위(저소득)	3.2	59.7	19~29세	2.4	40.2
2분위	4.2	55.7	30~39세	3.8	50.2
3분위	4.1	50.0	40~49세	3.3	49.2
4분위(고소득)	4.1	51.7	50~59세	4.7	60.5
모름/무응답	3.3	31.0	60세 이상	4.3	53.6
계	3.8	51.4	계	3.8	51.4

■ 금연치료제 효과성에 대한 인식

- 금연치료제 효과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소득수준별로 보면, 1분위(저소득층)에서는 2.7점, 4분위(고소득층)에서는 2.6점이었고, 연령대별로 보면, 20대 또는 30대에서는 2.5점, 60세 이상에서는 2.8점이었음
- 금연치료제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

〈표 3〉 소득수준별 · 연령별 금연치료제 효과에 대한 인식

소득수준별	평균	연령별	평균
1분위(저소득)	2.7	19~29세	2.5
2분위	2.6	30~39세	2.5
3분위	2.5	40~49세	2.6
4분위(고소득)	2.6	50~59세	2.7
모름/무응답	2.7	60세 이상	2.8
계	2.6	계	2.6

주: 매우 효과가 있다(5점) ~ 전혀 효과가 없다(1점)

3. 금연의향의 담배가격

■ 금연의향 담배가격 추정

○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금연의사 평균 담배가격은 8,900원대로 추정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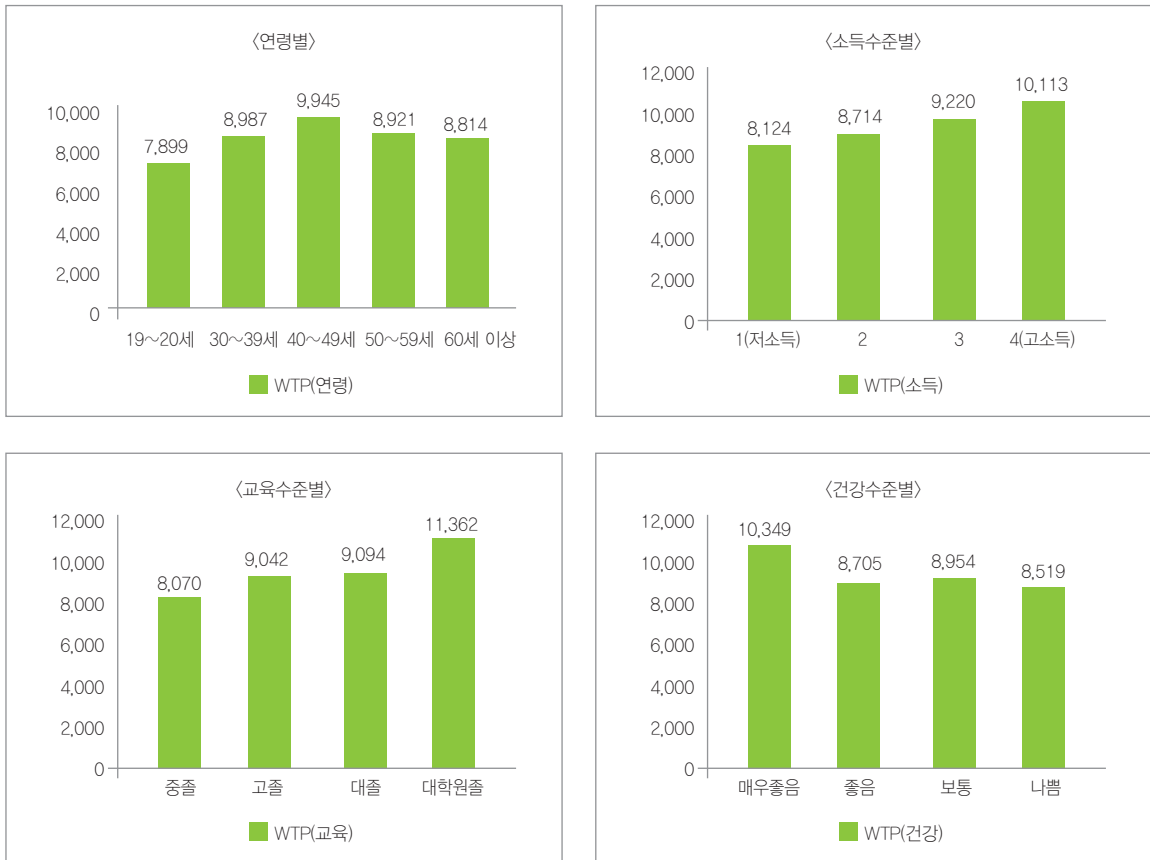
■ 소득수준별 금연의향 담배가격

○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연하게 되는 담배가격이 높아짐을 알 수 있어,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(금연의향 담배가격 약 10,000원) 보다 저소득층(금연의향 담배가격 약 8,000원)에서 더욱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

-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줌
-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의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연 실천율을 기대할 수 있음

■ 가격 인상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금연치료에 지원하도록 설계를 하면 저소득층의 금연 실천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선순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

[그림 4] 사회경제적 특성별 금연의향 담배가격



4. 금연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 지불의사액

■ 무료 금연치료 참가 의향

- 무료로 금연치료제가 제공될 경우에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800명 중에 329명이 참여의향(41.1%)이 있다고 응답함
 - 1년 이내 금연의향을 응답한 51.4%에 비해 낮은 수준인 41.1%로 앞의 금연치료제에 대한 다소의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
 -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지만 무료 금연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
-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금연치료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
- 연령별로 보면, 50~59세의 연령대에서 1년 이내 금연의향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,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의향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50대의 금연의향이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함

〈표 4〉 소득수준별 · 연령별 금연치료 참가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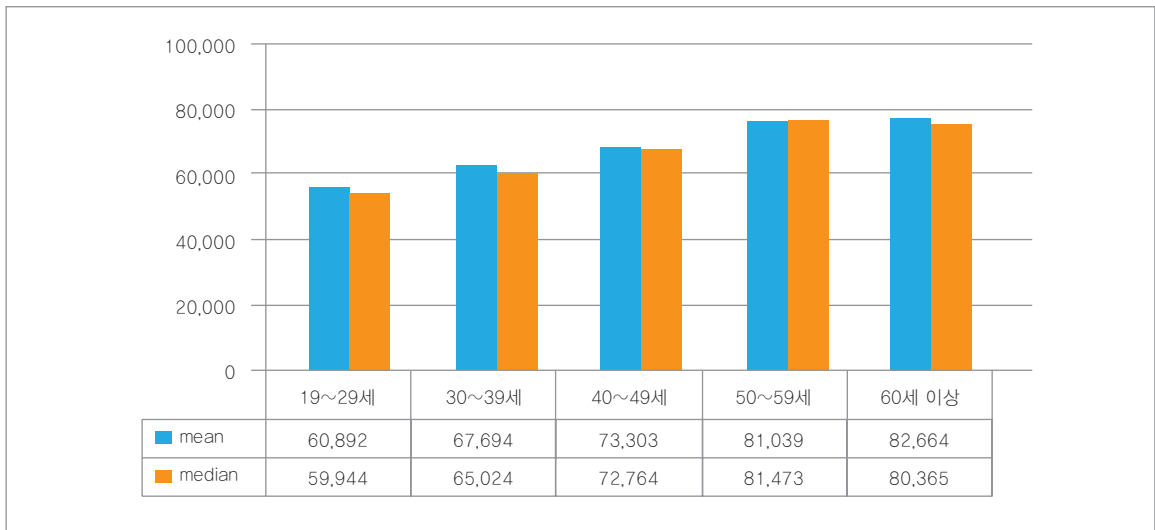
	소득수준별			연령별			
	전체중 %*	참여	비참여		전체중 %*	참여	비참여
1분위(저소득)	48.3	25.8	19.3	19~29세	39.2	12.2	13.2
2분위	43.8	23.4	21.0	30~39세	37.3	22.8	26.8
3분위	41.5	22.2	21.9	40~49세	43.6	23.7	21.4
4분위(고소득)	37.2	19.5	22.9	50~59세	39.5	18.2	19.5
모름/무응답	30.0	9.1	14.9	60세 이상	45.8	23.1	19.1
계	41.1	100.0	100.0	계	41.1	100.0	100.0

주: *(소득분위별 참여의향/소득분위별 응답자)*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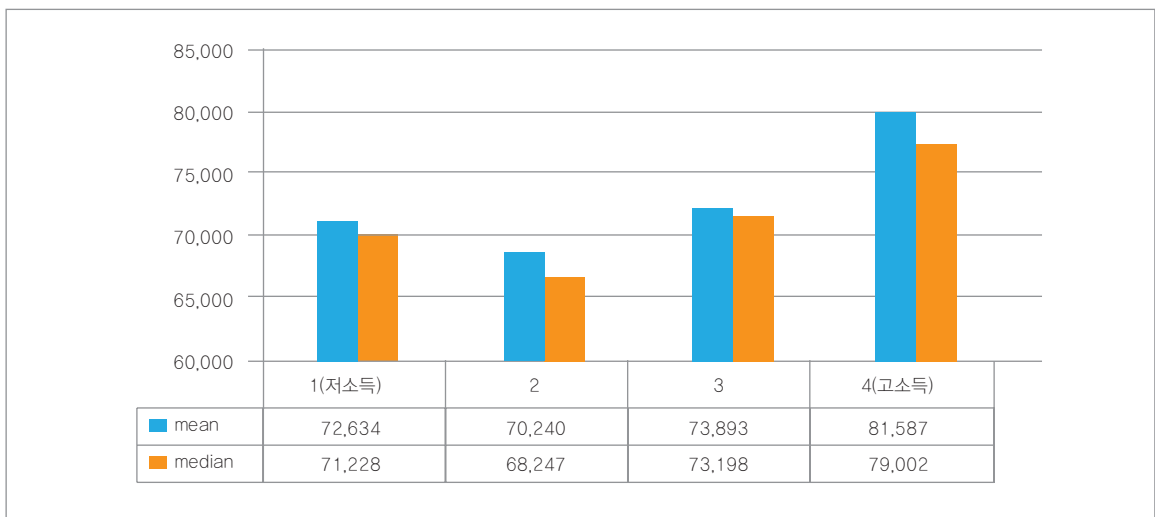
■ 금연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 지불의사액

-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음
 - 3개월간 금연치료제를 복용해야하고 한달간 비용이 10만원일 경우 국가가 월 평균 얼마를 지원해 주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함
- 추정 모형에 따라 월 평균 72,282원~74,429원만큼 지원을 해 준다면,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 - 즉, 금연치료제가 월평균 10만원이 소요된다면 약 70%는 국가에서 부담을, 나머지 약 30%는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음
- 이를 연령별,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,
 -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지원금이 높아야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
 - 소득수준 2분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향 지원액수가 높아지고 있음

[그림 5] 연령별 금연치료 지원의사액



[그림 6] 소득수준별 금연치료 지원의사액



5. 결론 및 정책제언

- 성인남성 흡연자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, 그리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저소득층과 50대의 연령대가 높은 수준의 1년 이내 금연의향을 보였으나, 저소득층의 금연 시도 횟수는 낮았으며, 50대는 국가의 무료 금연치료에 참가할 의향이 가장 적게 나타남
 - 흡연 강도가 높은 저소득층과 50대의 금연의사가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

- 금연할 의사가 있는 평균 담배가격은 8,900원대로 추정되었으며,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연의사 담배 가격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
 -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욱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어,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연 실천율을 기대할 수 있음
- 무료로 금연치료제가 제공될 경우에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향은 41% 정도로, 1년 이내 금연의향 51%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, 금연치료제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음
-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금연치료제를 복용해야하고 한달간 비용이 10만원일 경우 국가가 월 평균 얼마를 지원해 주면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, 평균 약 70%는 국가에서, 30%는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
- 담배관리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포함시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담배치료제를 보험 급여화하는 노력이 필요함
 - 담배중독(의존)을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해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바람직함